

(E) 劍鞘尻金具

二等邊三角形 모양을 한 金具로서 底邊쪽에 三條의 突帶를 새기고 幅面에 該當하는 側面에는 二條의 突帶를 들리고 있다. 底邊은 三·一 cm 高는 四 cm, 側面의 幅은 一 cm 이다. 質은 白銅으로서 表面은 黑漆色の 銹가 깨끗이 덮고 있다. 이러한 形類의 出土例는 大邱出土品 ⑥ 이라 傳해진 것에 도 있다.

(F) 頭狀金具

마치 後頭部의 毛髮을 模倣한 것처럼 縱으로 突線을 鑄出し켜 아랫쪽 頸에 該當하는 部分을 좁혀 毛髮을 모은 듯한 形狀을 하고 있으며 頭部 兩側面에는 眼球의 半球突出物이 있다. 突影가 새겨져 있는 面은 球狀으로 볼록하고 그 뒷面은 反對로 움푹 파여서 周緣部만 잘로 잘린듯 平平하게 磨研하였다. 뒷面은 마치 虎帶金具 ⑦ 의 뒷面과 같은 樣狀을 하고 있다. 用途는 알 수 없으나 細形銅劍의 鋒部쪽에서 發見되었다고 한다. 長은 四 cm 이고 最大幅은 三·四 cm 로서 잘린 周緣部를 除外하고는 黑漆色の 녹이 덮혀 있다.

(G) 把緣金具

扁橢圓形의 環으로서 黑漆色の 녹을 쓰고 있는 것과 白靑의 녹을 쓰고 있는 것이다. 모두 側面中央에 突帶를 一條씩 둘러두어 그것을 境界로 한 쪽은 環의 徑이 좁아진다. 크기는 長徑이 各各 五·六 cm, 五·四 cm, 五·二 cm 이다.

Ⅲ、結 論

이번 出土遺物 가운데 銅戈는 이러한 型의 것이 過去 西部日本地域에서 單 出土되었었고 韓半島에서는 初出이었다는데 極히 注目되는 바이다. 日本에서 지금까지 研究된 바로는 廣形銅器類와 細形銅器類 사이에 性格 및 時期에 많은 差異가 있음을 認定하고 있고 또한 廣形靑銅器類는 袒形이 細形靑銅器類에 있으며 細形靑銅器類는 韓半島에서 流入된 文化라 했다. 한편 廣形靑銅器類는 西部日本地域에서 特殊하게 發展된 二次的 文化라 했다. 廣形類는 實用性的의 細形類와 달리 日本의 銅鐸과 아울러 共同體

의 祭禮用器用으로 사용되고 細形보다 훨씬 後代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出土物과 關聯하여 몇 가지 생각되는 것은 韓半島에서 巨大한 器形의 量이 적었다는 點을 들어 巨大化의 過程이 日本에서 發端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南下한 細形銅利器類는 우리나라 南部半島地域에서 巨大化하는 器類와 한 때 共存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共存의 事實과 文化傳播上의 位置로 보아 巨大化의 發端은 韓半島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그것이 日本으로 波狀적으로 流入되어 간 것이라 본다. 韓半島에서의 社會는 北方의 보다 強力한 文化勢力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巨大化시킨 社會構造를 오래도록 持續시키지 못하고 곧 變質되어 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廣形化하는 器物의 所有社會가 어떠한 性格의 것인지 또 그것이 半島에서 어떠한 時期에 어떤 用途로 사용되었는지 또한 이에 따르는 諸般問題가 속히 研究되어 究明될 것을 期待하는 바이다.

註

- ① 尹武柄·「大邱發見의 靑銅斧」考古美術 五卷七·八號
- ② 金良善·「多鈕幾何學紋鏡研究抄」合同論文集 一
- ③ 日本의 考古學 彌生時代 一九六六年 河出書房
- ④ 「日本의 考古學Ⅱ」彌生時代 一九六六 河出書房
- ⑤ 朝鮮古文化綜鑑 一卷
- ⑥ 金良善·「多鈕幾何學紋鏡研究抄」插二五圖合同論文集 一
- ⑦ 永川 魚隱洞出土 虎帶金具 等

高麗梵鐘의 新例 (其八)

黃 壽 永

戊戌銘 銅鐘

(1)

이 新鐘은 今年 九月 六日 全南 高興郡 浦頭面 松山里 山一三三番地 積石層속에서 同里居住 丁炳任氏에 의하여 發見되어서 埋藏物로 申生되



歸屬된 것은 多幸한 일이다. 필자는 이 新鐘出土의 소식을 듣고 그 形態의 特異함에 놀라서 現地調査를 計劃한 바 있으나 그機會를 얻지 못하여 伴出遺物의 有無 등을 밝힐 수 없는 것은 甚歎한 일이었다.

(2)

이 鐘은 總高 四十五·三 cm 에 달하는 中鐘으로서 아마도 今年에 들어 出土된 相當數의 高麗鐘 중에서 最大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保存 또한 良好한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 鐘의 樣式은 韓國鐘으로서의 通式을 따르고 있어서 鐘頂에 龍鈕와 圓筒이 마련된 것은 他例와 다름이 없다. 또 上·下帶 上帶幅 二 cm 下帶幅 六 cm 가 있어서 각기 菊花와 寶相花紋을 돌린 것이나 下帶에 比하여 매우 좁은 上帶에 부쳐서 立狀三角帶가 달려 있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알려진 銅鐘에서 時代를 가릴 것 없이 그 乳廓이 모두 方形이었던 것은 거의 例外가 없었으며 다만 乳의 數와 만이 縱橫各三으로 九乳를 이루는 通例以外에 그 보다 數가 작은 것이 있으며 乳廓帶의 紋樣에 差別相이 보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新鐘에 있어서의 圓을 이루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上帶와 接連되어서 네 곳에 配置되어 있는 이 圓帶(外徑 十三·二 cm 幅 二·一 cm)에는 珠文안에 梵字가 둘러 있으며 그 안에는 九乳가 通例대로 配置되어 있다.

어 當地 教育區에서 사진과 銘文을 添付하여 文化財管理局에 報告된 것이다. 그後當局의 指示에 따라서 이 新鐘은 十月末 扶餘博物館에 移管되어 다시 調査를 받았는바 出土物이 올바른 節次를 따라서 國庫에

다음에 이같은 圓乳間에는 鐘腹部下帶에 接近하여 雲上의 坐佛二軀와 둥근 蓮花紋撞座二個가 交代로 配置되어 있는 바 이것 또한 韓國鐘의 傳統手法을 따르는 것이다. 撞座는 直徑 六·一 cm 로서 珠文으로 輪廓을 만든 속에 八瓣의 複蓮을 새겼는데 이와같은 上·下帶와 撞座 등의 紋樣과 彫法에서 미루어 扶餘博物館에 保管된 忠南 錦山 花林里 馬首里 出土의 中小鐘 ① 各一座와도 類似하다.

(3)

그런데 이 新例에는 圓乳 밑 下帶 사이에 計 六行 五十二字의 點刻된 銘文(字徑 二 cm)이 새겨져 있어서 더욱 貴重한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戊戌正月初五日

耆主前副戶

長公必棟(梁)

道人元明大匠信

仇十周匠 八重五十斤印造成也 三寶

戊戌正月初五日沙於鄉前副

初頭に 보이는 戊戌年<sup>②</sup>은 먼저 高麗 高宗二十五年 서기 一一三八年으로 推定하며 第二行의 耆字는 齋<sup>③</sup>가 아닌가 한다. 銘文中 最終行에 年代가 다시 보이고 있으며 鄉名이 있고 前副라 한 것은 同一人인 公必을 가르킨 것으로 보아서 이 最終行은 最初에 刻銘을 하러다가 다시 圓乳 밑을 擇하였기에 그대로 中斷된 것으로 보인다. 이 最終行의 戊戌五의 三字만이 陰刻된 것은 이와같은 推定을 可能케 하여준다. 下外徑 三十一 cm 同內徑 二五·八 cm 鐘身高 三十八·七 cm 로서 端正한 鐘體 위에 四圓이 配置된 것은 稀貴한 遺品이다. 끝으로 拓本과 銘文을 읽어 주신 洪思俊先生에게 感謝하는 바이다.

註

① 拙稿·高麗青銅梵鐘의 新例(其二)(考古美術)一一五 一九六〇年十二月)

② 德壽宮美術館所藏의 戊戌銘小鐘이 있다. 「金石遺文」五八 參照

⑧ 至正六年(一三四六) 銘上院寺香塔에 「...上院寺□□齋香塔...」의 타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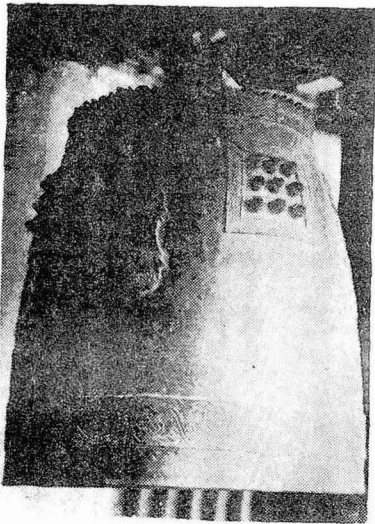
# 廣興寺 銅鐘

秦 弘 燮

安東郡 西後面 者品洞 廣興寺에는 寶物로 指定된 翠紙金泥와 白紙墨 書의 寫經 各二册(現在 安東郡教育廳에서 保管)이 있어 널리 알려진 바 있으나 今夏 調査에 依하여 石塔石造佛座臺, 禁口, 銅鐘 등이 確認되었으나 그 中 銅鐘이 가장 注目되었다.

銘文에 依하여 李朝時代의 製作임이 分明하나 各部 樣式이 古式을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形態도 李朝鐘으로서는 드물게 아름답다.

頂上에는 龍鈕와 音筒을 두고 鐘肩에는 方形區間을 만들고 그 안에 커의 方形에 가까운 蓮瓣을 하나씩 넣고 그 위에 如意頭文을 세워서 周廻하였다. 乳廓은 肩部에서 遊離되어 四處에 配置하였고 廓周에는 平行雙線으로 簡單한 唐草文을 陽刻하였고 廓內에 突起된 連蕾로 表現된 九乳가 있다. 鐘身에는 밑에 空間을 남기고 乳廓과 乳廓 사이에 各各 菩薩一軀씩을 陽刻하였다. 菩薩은 立像으로 圓形頭光, 寶冠, 衣紋等 모두 陽線으로 表現하였는데 手法이 매우 能熟하며 姿勢도 整齊되었다. 鐘口에서 亦是 遊離되어 陽鑄된 雙線唐草文帶가 있는 바 가지에서는 滿開된 菊花形 花朵와 半開의 蓮花가 派生되어 交替로 配



第七卷 第十一號 通卷七十六號

置되었다. 以上 樣式이 基本形態에 있어서 高麗鐘의 樣式을 充實히 따르고 彫刻 또한 洗練된 솜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銘文에 依하여 그 製作이 「萬曆元年」(李朝 宣祖六年, 西紀一五七三年)임을 알 수 있어 韓國 梵鐘樣式變遷을 考察함에 한 座標가 될 수 있는 重要한 一例라고 생각된다. 銘文은 乳廓과 菩薩像 사이에 點線으로 되어 있어 難讀이셨으나 現場에서 判讀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萬曆元年癸酉四月初日

□□山□□寺一百四十斤

入大鐘十五斤入□鑄成記

大□□廣□ 大主□□□

□□□□ 大主□金西主

大主崔□□ 施主□□□□

道雄? 漢月 □□ □□

□先 仅崙 印 □□ □□

鑄匠金慈山□□ □□ □□

別座士印比丘 □□ □□

□□□惠□□

大化主□□比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全高 六〇・五 cm 身高 四四・五 cm 肩幅 三〇 cm 口徑 四一 cm 厚 二・五 cm

## 襄陽郡 黃耳里 塔・像

鄭 永 鎬

江原道 襄陽郡 西面 黃耳里 峴西國民學校 앞(南方) 六〇 m 되는 耕作地에 石佛坐像一軀와 石塔一基가 遺存하는데 이 곳이 原位置인지는 알 수 없